

## 국가위험도 낮아져

1999. 1. 8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인 미국 외튼계량경제연구소(WEFA)가 발표한 국가위험도 조사에서 한국은 총12개 항목중 환율과 물가안정, 기업가신뢰 등 3개 부문에서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WEFA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상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국가 위험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았다. WEFA는 "최근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는 데다 대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우대금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기획예산위원회, '99~2002년

### 중기재정계획 발표

1999. 1. 13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002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과학기술·정보화, 문화·관광, 사회복지·보건, 환경, 중소기업·수출부문에 재정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경제제약약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9~2002년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한 연도별 예산을 편성·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계획기간 중 최우선지원분야로 SOC 분야를 선정, 2002년까지 SOC투자를 연평균 10% 이상씩 늘려나가되 물류개선 효과가 큰 고속도로와 철도 신항만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중기재정계획이 마무리되는 200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5%에 달하고 주택보급율은 100%에 달할 것으로 내다 봤다.

## 동양, '매직콘 베타'개발

1999. 1. 20

동양시멘트(주)가 국내 최초로 조립식 건축공법인 'BC슬리브 이음공법'에서 철근과 철근을 잇는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트 몰탈을 개발했다. '매직콘 베타'인 이 제품은 일반시멘트의 4배 이상의 강도에다 뛰어난 유동성과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현장 적용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조립식 건축구조물의 기둥, 내벽력 등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부재들을 완벽하게 일체화하면서 강하게 접합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동양측은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BC슬리브 이음공법용 몰탈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일본 시멘트 수출, 태국에 세계 1위 내줘

1999. 1. 22

일본의 지난해 시멘트 수출이 태국에 뒤져 '92년부터 지켜온 세계 최대 수출국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고 니혼게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시멘트 수출량은 주시장인 동남아의 경제위기로 전년에 비해 약 40%가량 격감한 757만톤에 그친 반면 태국은 9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태국은 내수부진으로 지난해 국내 전체 생산량은 약 3천만톤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연간 생산량은 약 9천만톤으로 수출비중은 10~20%에 머물고 있으나 그 동안 내수부진을 메워온 수출이 줄어들어 따라 국내 업체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작년 주택건설 49% 감소

1999. 1. 26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주택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30만 6,031가구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

는 「'98년 주택건설동향」을 통해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이 전년 실적 59만 6,435가구보다 48.7%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건설실적이 13만 149가구로 전년보다 40.2%, 민간부문은 17만 4,982가구로 53.6% 각각 줄어 민간부문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외환위기 이래 경기침체와 실질소득격감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로 지난해 4월부터 월별 주택건설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50% 이상 줄었으나 4/4분기 들어서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서서히 늘어 감소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 주택사 부도 IMF 이전보다 줄어 1999. 2. 5

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건수는 IMF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월(54개사)의 10%선인 7개사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체제전인 지난 '97년(19개사)과 '96년(21개사) 부도업체수의 3분의 1규모로 최근의 금리인하 등으로 업체들이 긴급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는 “부도업체수가 급격히 준 것은 업체들이 사업에 손을 놓고 있어 신규 자금소요가 없는 데다 금리인하와 대출확대로 급박한 자금난이 다소 풀렸기 때문이며 특히 상환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했던 부실기업이 퇴출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영난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 균열 없는 경량기포콘크리트 개발 1999. 2. 8

단열공사 전문업체인 정원에너지는 기포발생방법과 장비의 성능을 개선해 균열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한 경량기포콘크리트 제조공법을 개발했다고 밝혔

다. 이 공법은 기존의 기포발생 장치보다 2~3배의 힘으로 바람을 불어 단단하고 균일한 기포를 생성하며 배합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균일한 강도를 유지하는 한편 균열발생이 거의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특히 시멘트가 침전되는 현상이 없어지고 기포의 파괴로 인한 침하가 방지돼 기존 제품보다 시멘트의 혼입량을 15%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도 뛰어나다.

## 주택활성화자금 올해 9조원 지원 1999. 2. 10

건설교통부는 9조 4,20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99년 주택건설종합계획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중도금 대출 7조 2,000억원, 미분양주택 해소자금으로 1조 3,400억원, 중형임대주택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반환자금, 임대중도금, 상환기간연장자금, 재개발사업자금, 인수촉진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등을 각각 용자해 주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1가구당 대출한도 1,6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년중 주택 40만호 건설에 필요한 1,200만평의 택지중 600만평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 “콘크리트 슬러지를 콘크리트 원료로” 일본, 재이용플랜트 개발 1999. 2. 22

일본 환경기술개발은 슬러지케이이크를 미세화해 생콘크리트에 10%까지 혼합하는데 성공하고 이에 따른 플랜트를 개발하는 등 제반기술을 확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플랜트는 생콘크리트슬러

지 미분쇄장치, 분급기, 파쇄기, 집진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간당 1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투자비와 인건비, 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1톤 생성처리 비용은 3,300원으로 폐기물 처분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 폐기물로 취급돼 생콘크리트업체의 원가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슬러지를 손쉽게 처리, 생산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동양, 수출시장개척 적극 나서**

1999. 3. 10

동양시멘트(주)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멘트 수출목표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60만톤으로 잡고 수출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최근 멕시코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시멘트 메이저 기업인 시멕스사와 70만톤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품질조건이 까다로운 미국으로 매달 8~12만톤의 시멘트를 수출할 계획이며 5월중에도 30만톤 규모의 시멘트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올 한해동안 미국 수출물량만도 100만톤이 넘으며 기존의 수출선인 일본, 대만, 이집트, 동남아 등의 수출물량도 60만톤이 넘는다. 이와 같이 그동안 수입선을 개척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출하는 수준에 머무르던 국내 시멘트업체가 올해부터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 시멘트 수출물량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드라이 몰탈 시장 8년만에 84배 신장**

1999. 3. 20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자재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의 드라이 몰탈 시장은 급속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시멘트(주), 한일

시멘트공업(주), 성신양회공업(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 등 드라이 몰탈 제조·판매업체들은 시멘트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는 극심한 내수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드라이 몰탈을 136만8천톤이나 팔아 약 5백억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드라이 몰탈이 처음 선보인 지난 '91년 당시 매출이 1만2천톤, 6억원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8년만에 시장규모가 83배나 신장한 셈이다.

**북한, 시멘트 소성로의 먼지로 중조 생산**

1999. 3. 22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최근 시멘트 소성로의 먼지를 이용해 중조(重曹, 수소탄산나트륨)를 생산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근 몇 년간 조성된 경제적 난관으로 인해 전력공급이 어려워져 전반적으로 화학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암모니아 공업에 의존하던 중조생산을 시멘트 소성로의 먼지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 수소탄산나트륨 뿐만 아니라 염화칼륨 결정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만든 염화칼륨은 보건분야에서 수액제제를 제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으로 쓰인다. 중앙통신은 이 방법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설생산 9% 감소**

1999. 3. 24

한국은행이 잠정 발표한 「'98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총생산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고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돼 전년도의 453조 2,000억원에서 449조 5,000억원으로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기

업들의 투자심리 위축과 정부부문의 투자부진으로 전체 생산규모가 45조 5,506억원에 그쳐 '97년의 52조 7,955억원보다 13.7%나 줄었으며 '95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도 9.0%나 감소('98년 41조 9,647억원, '97년 46조 1,374억원)했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거·비주거용 건물건설이 큰 폭으로 줄고 고속도로를 제외한 토목건설도 전반적으로 부진해 민간건설생산이 평균 12.2% 급감한 데다 공공건물·상하수도 등의 생산부진으로 정부건설도 3.3%나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 동양, 계열사·하청업체 등 6개사 합병 1999. 3. 24

동양시멘트(주)는 계열사인 동양글로벌과 하청업체인 대원산업, 동남레미콘, 제원, 동일산업, 동해리조트 등 총 6개사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동양이 계열사와 하청업체 6개사를 흡수·합병키로 한 것은 중복업무를 통합하고 안정적인 영업망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이번에 동양이 인수하는 하청업체의 경우 장기적인 사업전망은 밝지만 경영이 부실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동양은 인수한 6개사의 조직을 통합운영해 합병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내년도 SOC예산 대폭 증액 1999. 3. 31

기획예산위원회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의 예산은 미래대비와 경제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SOC투자 와 지식·정보·문화부문을 중점 지원하는 등 올해보다 6% 정도 늘어난 90조 8천억원 수준에서 편성,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의 예산편성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SOC 등 중점지원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최고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SOC분야의 용지보상 및 계속비 제도의 개선, 광역철도 재원분담, 지하철건설 지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철도사업민영화 지원, 농어촌지원분야의 새만금방조제 축조, 환경분야의 수질개선사업 효율성제고 등 30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키로 했다.

### KDI, 올해 성장 4.3% 전망 1999. 4. 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9년 1분기 경제전망에서 "금리가 많이 내려 내수가 활성화하고, 경제붕괴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작년 12월에 내놓았던 전망치 2.2%를 상향조정한 4.3%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2.0%, 실업률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산업연구원(KIET)도 '99~2000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6%로 발표했다. KDI는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시하면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IET는 "올해에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플러스 성장을 끌고 나갈 것"이라며 "국제금융시장불안 등 해외요인이 없다면 내년도도 5.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 쌍용, 균열·부실 막는 시멘트 개발 1999. 4. 7

쌍용양회공업(주)은 기존 제품보다 열이 적게 발생해 균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벨라이트시멘트'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쌍용측은 기존 시멘트가 모래와 섞일 때 70도의 열이 발생, 팽창하면서 균열

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이 제품은 팽창이 거의 없는 50도의 열만 발생하며 또한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 원자력발전소·가스탱크의 공사에 적합하여 서울시, 대전시 지하철 건설본부도 공사때 발생하는 균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경쟁력 38위로 하락

1999. 4. 21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4년 연속 추락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전 세계 47개국의 국내경제·국제화·정부·금융 등 8개 부문별 경쟁력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경쟁력은 지난해(35위)보다 3단계 하락한 38위에 그쳤다. 이는 우리처럼 경제위기에 처해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태국(34위)이나 브라질(35위) 등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 부문의 경쟁력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94년 32위에서 '95년 26위로 상승했으나 '96년 27위 '97년 30위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하락했다.

## 시멘트업계 생산설비 풀가동

1999. 4. 22

경기회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인 시멘트업계들이 수출확대·건설수요 증가 기대감 등으로 보유 설비를 풀가동하기 시작했다. 시멘트업계가 이처럼 활기를 띠는 것은 미국, 동남아, 중동 등지의 수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방침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멘트내수시장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설공사 등의

계절적 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다.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RH시멘트(주)가 올 들어 체결한 물량만 약 470만톤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출실적 2,824천톤에 비해 두배가량 증가했다. 이밖에 한일시멘트공업(주), 아세아시멘트공업(주), 성신양회공업(주) 등도 대부분 보유중인 시멘트 생산설비 가동률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 현대, 해외틈새시장 공략

1999. 4. 23

현대시멘트(주)가 수익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30여년간 시멘트사업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활용, 해외시멘트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에 진출키로 하고 기자재공급, 엔지니어링 공장건설 시운전 등을 일괄책임지는 턴키방식의 계약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사인 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공개경쟁입찰이 실시될 중동, 아프리카 지역 플랜트사업에 공동 진출키로 했으며 원예·화훼단지조성업자들과 손잡고 최근 특허 취득한 기술을 이용, 절연 원예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 지난해 건설업, 사상최악의 수익률 기록

1999. 5. 8

건설업종의 경영수익구조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매출액 13억원 이상 187개 주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건설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들의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4.6%로 나타나 공사를 많이 수행할수록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최악의 수익구조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쟁심화의 저가투찰로 100억원의 공사를 수행하여 4억6천만원의 적자를 본 것이

다. 또한 평균부채비율이 수익성 악화로 659.4%까지 상승했으며 매출액 규모 또한 공사수주환경의 악화로 전년보다 16.8%나 줄어드는 등 매출·재무구조면에서도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건설경기 침체와 투자부진, 수주경쟁심화 등 지난해 기업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산매각과 재평가, 고금리 대출금의 축소 및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 비업무용토지 종과세제도 2001년까지 폐지 1999. 5. 12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동안 비업무용토지에 적용하던 종과세제도를 오는 2001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에 앞서 공장용 토지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용지로 인정되는 기준면적을 현재보다 50%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중에 기준공장 면적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와 관련, 자산재평가제한과 여신운영규정 제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비업무용토지의 강제처분 규제가 이미 폐지된 데 이어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종과세제도도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그 동안 공장용지에 대해 업종별로 기준공장면적을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규정, 취득세 5배증과 등 각종 세제상 불이익을 부과해 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업종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업종구분을 현재 600여개에서 200여개로 단순화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업종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 동양, 대만에 시멘트 수출 1999. 5. 25

동양시멘트(주)가 대만에 시멘트 30만톤을 수출

한다. 25일 동양측은 대만 치아신그룹의 계열사인 영창신사와 30만톤 규모의 시멘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대만은 전통적으로 시멘트 수입의존도가 높아 미국, 일본에 이어 수출주력시장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다”며 “이번 계약을 대만 시멘트 수출에 대한 교두보로 삼아 현지시장 개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수출을 계기로 당초 130만톤으로 잡았던 올해 수출목표를 200만톤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공장 가동율이 두달 연속 풀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세계 3대 시멘트 메이저인 미국의 시멕스사와 70만톤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었다.

## 삼성코닝, 폐기물을 시멘트원료로 재활용 1999. 5. 27

유리를 연마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슬러지(폐기물)가 시멘트원료로 100% 재활용된다. 삼성코닝은 브라운관용 유리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연마공정에서 연간 1만 3,000톤씩 발생하는 슬러지를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의 시멘트원료로 공급해 재활용하고 있다. 삼성코닝은 슬러지가 시멘트원료인 점토와 비슷한 성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말부터 쌍용, 동양과 함께 수차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쌍용에 월 600톤씩, 5월부터는 동양에 월 550톤씩의 슬러지 공급계약을 체결해 시멘트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코닝은 슬러지 재활용을 통해 처리비용을 45% 절감하고 쌍용과 동양 측도 재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삼성코닝은 50% 미만이던 전사 폐기물 재활용률을 85%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경비절감, 원료비절감, 환경보호의 세가지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로스차일드사(社), 한라시멘트·만도  
기계에 4억 4,400만달러 추가 투자  
1999. 6. 1**

대규모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투자기관인 로스차일드사가 올해 말까지 한라시멘트(주)·만도기계에 추가적으로 4억 4,400만달러를 투자한다. 로스차일드사는 올 들어 한라시멘트(주)와 만도기계에 8억 5,6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지금까지 한라시멘트(주)에 3억 4,500만달러를 투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투자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해 로스차일드 펀드의 윌버 로스 회장은 “한라시멘트(주)의 합작 파트너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주요 기업과 인수·합병(M&A)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투자자를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스 회장은 “한라시멘트(주)의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기술이 뛰어나 선진국 대부분의 업체가 관심이 많다”며 “경쟁이 심해 발표가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작파트너는 한라시멘트(주)의 상당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나 경영상태가 좋은 만큼 경영권을 인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가정용 즉석 시멘트’  
업계 최초 개발  
1999. 6. 2**

한일시멘트공업(주)은 업계 처음으로 무게 2.5kg(설탕봉지 크기) 정도의 가정용 시멘트(레미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짐수리 전용으로 개발한 DIY(Do It Yourself)용 소포장 시멘트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특히 시멘트와 모래 등 작업재료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물만 준비하면 되고, 또한 작업성을 높여 주는 특성

강화제가 첨가돼 업자를 부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혼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다. 한일측 관계자는 “IMF시대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작업하는 DIY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작은 용량의 제품개발과 함께 소비자 요구에 맞춰 타일 접착용, 컬러 몰탈과 같은 특수한 용도에 까지 제품을 더욱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건설부진으로 GDP 하락,  
실업률은 높아져  
1999. 6. 8**

한국은행은 7일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투자의 부진이 GDP 성장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산업연관표('95년 기준)를 이용해 시산한 결과 주택건설투자는 지난 '97년과 '98년 각각 6.3%, 7.6% 감소하는 침체가 계속돼 GDP를 97년에 0.44%포인트, '98년에 0.48%포인트씩 각각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근, 시멘트, 목재 등 건설중간재 생산업종과 건축관련 서비스 부문이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고 주택건설투자 부진은 또 취업유발인원을 감소시켜 '97년과 '98년중에 실업률을 각각 0.3%포인트씩 끌어올려 실업사태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주택건설투자의 파급효과를 다른 산업과 비교한 결과,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제조업은 물론 전산업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직·간접 산출액을 의미하는 생산유발계수가 주택건설업이 2.10을 기록해 제조업(1.89), 서비스업(1.67) 뿐만 아니라 전산업 평균치(1.83) 보다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선행지표인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및 공사수주액의 감소세가 계속돼 주택건설투자가 본격 회복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멘트 업계, 특수시멘트 개발경쟁 치열 1999. 6. 9

장차 산업의 대부격인 시멘트 산업이 예전의 「포틀랜드시멘트」의 단일품목 대량 생산체제에서 이제는 각종 특수 기능을 가진 「특수시멘트」를 개발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즉,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건설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통한 건설비 절감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경제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시멘트 개발경쟁 열기는 국내 시멘트 회사들의 이익창출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고있는 추세다. 특수시멘트는 대부분 「몰탈」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몰탈 형태의 시멘트는 초보자라도 특별한 기술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앞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DIY (Do It Yourself) 제품군에 시멘트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 내년 SOC투자요구액 16.8조원에 달해 1999. 6. 9

기획예산처는 8일 건설교통부 등 49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00조 8,574억원에 달해 올해 예산대비 24.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SOC분야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28.8% 늘어난 16조 8,000억에 달한다. SOC관련 주요 신규투자사업은 경전선 직·복선화건설사업 기본설계를 비롯, 동해선 복선전철, 호법~가남 고속도로확장, 평택항 동측일반부두건설, 부산남항대교 건설, 신공항민자철도, 기업보유토지매입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 등이다.

## 건설투자 증가세 전환 1999. 6. 11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들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조짐을 보여 지난 연말 수립한 「건설 및 부동산경기 전망」을 수정, 발표했다. 이 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가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전년보다 3.1% 감소할 것으로 보았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0.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토목건설투자는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한 SOC투자증액과 조기집행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9.5% 늘어난 41조 3,331억원('95년 불변가격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거용건설투자는 1.1% 늘어난 24조 9,085억원, 비주거용건설투자는 17.7%가 줄어든 14조 6,211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일,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 1999. 6. 11

한일시멘트공업(주)이 미국 베일런스 테크놀러지와 합작으로 설립한 「한일베일런스」를 통해 올해 9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지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20%가량 높으면서도 형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폭발과 공해여려가 전혀 없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기도 용인공장에 양산 체제를 갖추고 시제품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한일측은 1차적으로 휴대전화 용도인 「소형전지」를 올해 안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이러한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00년에는 1,200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